

제주의 무속신앙과 신종교

조성윤 / 제주대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제주의 무속신앙과 신종교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무속신앙은 민간신앙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가신신앙, 풍수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제도화되지 않은 채 폭넓게 민간 사회 속에 존재해 왔다. 반면 신종교는 조직화 체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제도 종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신종교도 있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발생한 신종교들은 대부분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의 전래에 자극을 받으면서 무속 신앙의 토양 위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사회 변동 과정에서 양자의 상호 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교와 신종교 각각에 대한 상세한 조사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지금도 여전히 무속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일상적인 삶의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사회이다. 해방 이후 지역별 종교 분포의 변화를 검토한 연구를 보면, 급속히 신자가 증가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기독교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불교 신자 보다 많지만,

제주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곧바로 무속의 뿌리가 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주도의 종교 지형이 전국적인 상황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한편 제주의 신종교는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인 상황과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수나 지역 규모가 아주 작은데 비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신종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제주 출신의 교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종교 집단의 존재도 눈에 띈다. 천도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신 수운교 신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든지, 찬물교 교주가 제주도 우도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흩어져 형성한 여러 종파들 이를테면 천지대안도, 삼천교 등의 교주가 모두 제주 출신이라는 점등이 그 보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주지역 신종교의 특성이 무속 신앙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다.

제주의 무속신앙에 대한 조사 연구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상세하게 이루어진 반면, 신종교에 대해서는 몇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하며 지극히 부분적인 작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제주도 신종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 무교와 신종교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 설명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근대 이후 제주도에서 퍼져 나갔던 신종교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변화의 추이를 무속 신앙의 변화와 이어 보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2. 증산교 계열의 신종교

제주도의 신종교 중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와 민간신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제도화만 이루어진 채 유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종교가 제주 지역에 정착한 것과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신종교가 생겨난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외부로부터 발생한 신종교가 제주에 들어와 정착한 다음, 그것이 제주의 무속과 얽혀서 혼합현상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외부와의 고리가 끊어진 채, 독자적인 종교 세계를 구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신종교도 일단 제주 사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육지부의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신종교가 유입된 시기는 대체로 한국 사회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던 시기에 해당되며 증산교가 가장 대표적이다. 일제 초기 증산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며 직접 가르침을 전파했고,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道典』에 그 내용 일부가 전한다. 선도교(仙道敎)는 1910년대부터 삼남 지방에 널리 퍼졌던 신종교로서 일제 침략기 내내 제주도에서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전파되었다. 선도교는 다른 지방에서는 태을교(太乙敎), 흠치교(訶咷敎)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졌으며, 공개적인 활동으로 전환한 1920년대부터 보천교(普天敎)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 사이에는 지금까지도 선도교라는 명칭이 깊게 각인되어 있을 뿐 다른 명칭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선도교가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1913년경이지만 교조인 증산(飯山)강일순(姜一淳)이 핵심 측근인 김형렬(金亨烈)과 함께 1903년에 제주도를 다녀간 시기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기적을 보이고 기복(祈福)과 치병을 강조했으므로, 이를 본 제주도민들이 신자가 되었다. 특히 선도교가 변해 가는 세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갓과 도포 등의 전통복장 사용을 고집하고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양인(洋人)은 배척하였으므로, 무속신앙을 갖고 있던 일반 농어민들과 천주교나 개신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유림들이 많이 입교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일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918년 중문면 도순리에 있는 법정사(法井寺)에서 대규모 항일 운동이 터져 나왔다. 중심은 법정사 승려 김연일(金蓮日)과 선도교 수령(首領) 박명수(朴明洙, 또는 朴周錫)이었으며, 참가한 4백여 명의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선도교인들이었다. 당시 선도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고, 일제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었다. 김연일은 9월 19일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놈들이 우리 조선을 병합한 다음 관리들은 물론 왜상인들까지도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이제 곧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이니, 우선 제주도에 거주하는 왜놈 관리들을 죽이고, 왜상인들을 섬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0월 6일 자신이 불무황제라고, 선언하고, 박명수를 도대장(都大將)으로 삼고, 모여든 신도들을 2대로 편성하여 거사를 단행하였다.

법정사 항쟁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지만,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지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선도교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선도교는 1918년 항일항쟁으로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제주도에 널리 퍼져 나갔다. 1922년 보천교(普天敎)라는 이름으로 공개화된 다음 제주에도 진정원(眞正院)을 설치하여 정식 포교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신도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한 것을 보면(全羅南道濟州島廳, 1924:74), 신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늘

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보천교의 내분이 심화되는 1926년 이후에는 크게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 하지만 1930년대의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教), 1940년대에는 미륵교(彌勒教)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또 해방 이후에는 무극대도교, 단군성주교 등이 모두 이 계열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무극대도교인데, 이것은 1936년에 제주 중문 대포리 출신 강승태(姜昇泰: 또는 姜承河)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신종교이다. 1930년대 후반은 이미 육지에서는 보천교가 내분으로 지리멸렬한 시기이며, 김형렬의 미륵불교(彌勒佛敎)를 비롯한 증산교 계통의 수십 개의 분파들이 제각기 활동하지만 전체적인 교세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는 교단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과 거의 천여 명에 가까운 신자를 확보했다는 사실에서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18년에 선도교 신자가 되었는데, 당시 선도교 본부에서 제주에 파견 나왔던 강석호(姜錫鎬), 신백근(申百斤), 김시산(金時山)등으로부터 포교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로부터 그는 가까운 장래에 진인(眞人) 정도령(鄭道令)이 나타나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로 등극하면 증산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신선이 된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도교에 심취한 것으로 보인다(권인혁, 1996:151). 그는 1931년경부터 눈이 멀기 시작했는데, 보천교를 계속 믿어 정도령이 나타나면 눈도 다시 뜨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그는 醫生 우문규(禹文圭)를 따라 한법의(漢法醫)를 배우고, 한약 조제 판매 행상을 하는 한편 점쟁이(占卜者) 鄭某로부터 기도와 주술 수련하는 방법을 전수 받았다. 그러던 중 1936년 무극대도교를 만들어 스스로 교주가 되었다. 그는 “1924년 2월 21일과 22일 이틀 밤 강증산이 현몽하여 그에게 경서(經書)5권을 주었고, 1930년 주문구주송(呪文口誦)수련 중에 강증산의 영이 나타나 너는

앞으로 10년간 대성할 때까지 맹목(盲目)하여 한 마음으로 수도하라는 신명을 받았는데, 다음 해인 1931년부터 맹인이 되었으므로 확실히 영통을 받은 것이라 하고, . . . 예로부터 후천 5만년의 대운(太運)을 받은 종교를 일으킬 사람은 강성(姜姓)중에서 여덟 번째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태고로부터 강성은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로부터 강증산(姜甌山)까지가 일곱 번째이고, 여덟 번째는 바로 강승하 자신이다. . . . 나야말로 지상(地上)대도사회(大道社會)를 건설할 사람이다”라고 하였다.²⁾

무극대도교의 교의(教義)설명은 대부분 정도령이 나타나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을 독립시킨 다음, 전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 때가 되면 무극대도교 신도들은 성인반열에 올라 영원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잠시 성하다가 곧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특히 일본이 곧 망할 테니 일본에 가 있던 친족들을 모두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교주는 신도들을 모아 제주도 여러 산에서 산왕제(山王祭)를 지내고 강증산 탄생 기념제 등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언동은 일본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황을 모독하는 엄청난 불경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조선독립을 고취하는 위험한 단체일 뿐이었다.

반일적인 사상이 강한 반면 무극대도교는 교도들에게 재산을 바치기를 강요하였다. 이는 민중들의 고통과 바램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면서 스스로를 살찌워 비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주 강승태는 한방 의료 행위를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아들였으며, “경진년(1940)년에 정도령이 출현하면 일본과 중국을 정복하여 현재의 사회제도가 다 바뀔 것이니 지금은 돈은 전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소유한 토지와 소유물을 모두 팔아서 나에게 헌금하면 지금 질병은 자연히 치료되도록 기도하여 좁은 물론 장래 일국 일교(一國一教)가 되어 교주가 된 때에

는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신도들을 설득한 것은 물론 자녀들을 교단에 바치게 해 오황부인(五皇婦人), 선동선녀(仙童仙女)로 삼아 주변에 두었다. 이러한 행위는 물론 강승태가 말한 후천개벽의 세상, 즉 미래에 대한 희망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 선전에 속아 넘어가 패가망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시간이 흐른 위에 무극대도교가 말했던 세상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확신한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는 무극대도교가 민중을 속이는 거짓 종교에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해방 이후 제주도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선도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체로 무극대도교로부터 생겨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들 종교는 사라졌다. 물론 그냥 사라진 것만은 아니다. 현재 추정하기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흐름 즉 수산교(水山教)와 단군성주교(檀君聖主教)등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3. 찬물교 계통의 신종교

찬물교는 1930년대 말 부산지방에서 시작되었으며, 1950년 교주 김봉남이 사망한 뒤 10여개의 교단으로 분리되었다. 찬물교 계통 교단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강오와 탁명환의 조사 연구가 있었다.³⁾ 나는 두 연구자의 1960-70년대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으면서, 이 가운데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존속되고 있는 「삼법수도교화원(三法修道教化院)」을 사례로 선택하여 조사를 한 바 있다.⁴⁾ 삼법수도 교화원은 김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김해·부산 지방과 제주도에 신도들이 주로 퍼져 있다.

찬물교 계통의 교단의 창시자는 김영근(金永根, 일명 봉남)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1898년 4월 11일 제주도 북군 구좌면(舊佐面) 연평

리(演坪里) 우도(牛島)라는 섬에서 태어나, 14세 때 병이 들어 한약과 침구의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귀신이 들린 병이라 하여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효력이 전혀 없었다. 16세 때에는 형을 따라 당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보천교(普天敎)에 입교하여 수도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8세 때 해녀들을 따라 부산으로 가서 해녀들 작업배의 사공 조수로 일을 하였다. 이 당시 김영근은 여전히 지병을 안고 있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의 명산대천을 헤매며 이름난 도인을 찾아가 수도생활을 했다. 1936년경 부산에 자리 잡고 포교하는 무량도(無量道)간부인 백남도인(白南道人)을 소문을 듣고 찾아가, 그가 지도하는 대로 수련을 시작하였다. 그 때 제단의 부처님 앞에 바쳐놓은 찬물 한 그릇을 먹고 아미타불 주문을 외운지 10분 만에 합장한 손이 떨리고 전신에 동요가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토설(吐說)이 나오는데 놀람과 매력을 느껴 백남도인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수련 공부를 한 일주야 만에 자신의 고질병이 낫자 감격하였다고 한다.

이 때부터 김영근은 무량교의 교도가 되었다. 그러나 무량교는 교단 조직이 짜여져 있는 종교가 아니었다. 매우 허술한 것이었으며, 제각기 주문을 외우며 수련을 통해 도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종교였다.⁵⁾ 김영근은 이 종교 신자로 있으면서 1937년 정월 15일 하늘로부터 「물法」을 받았다. 이 때부터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전에 없던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7년 뒤인 1943년(46세)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포교가 시작되었는데, 이 때 물 한 그릇으로 장님이 눈을 떴다든가 정신병은 물론 나병도 나았으며,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 신도들이 다시 모여들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든 사람들도 병이 나온 다음에는 신도가 되었기 때문에 포교를 시작한지 얼마 안가 신도가 다시 수백 명에

이르렀다. 영도에서 포교를 시작한 것은 그 곳에 고향인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신도들 중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봉남이 사망하자 제자들이 모여 용화사(龍華寺)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념적 갈등, 교통 계승의 문제, 교단 운영상의 문제로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하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해산하고 말았다.

봉남교의 분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봉남의 제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도를 터득했음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교단을 만든 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교단이 분열되는 경우에는 교리의 자의적인 수정과 왜곡이 뒤따르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스승을 감추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봉남교계에서는 그들 스승을 감추고 제자 각자가 자기 스스로 교주가 되어 교단을 독자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태화교는 문필송 고남규가 경남·부산 지역에서 봉남을 교조로 받들고, 그의 가르침을 전승하면서 시작한 교단이지만, 제주 지방에서는 고대오(高大五)가 그 뒤 삼천교(三天教)를 세워 오늘날 제주도 안에서 상당한 교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교리가 상당히 달라져 찬물교의 본래 모습으로부터 크게 이탈한 상태이다. 타불교는 제자 윤유선이 1945년 11월 고향으로 돌아와 물범 교화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단으로 그의 치병 능력을 보고 3천명 이상의 신도를 모았다. 1974년 삼법수도교화원이 본격적으로 재출발하자 함께 힘을 합쳤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삼법수도교화원으로 흡수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보살이 살아 있을 때는 도력(道力)이 대단해서 찬물을 주고 아픈 곳을 때리면서 축원하면 많은 병이 쉽게 나왔다.

천지대안교(天地大安教)는 여제자 부경순(夫景順)이 세운 교단으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무교적인 접신 현상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아 이를 중심으로 교리를 제시하며 발전하였다. 부경순은 고향이 제주도 북군 구좌면 종달리이다. 신기가 있어 고생하다가 봉남의 처

료를 받고 나아 신도가 되었으며, 봉남의 불법 전수를 받고 “月仙”이라는 道號까지 받았다. 그녀는 물법 치료의 신비와 修練 중에 나타나는 幻覺이나 吐說을 곧 도통의 경지이며 神明의 계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巫女가 接神하는 상태처럼 보이는 현상에 자주 빠져들다 봉남의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降神과 吐說은 일반 巫俗적 성향이 강한 신도들에게는 매력적인 것이었다. 봉남 사망 이후 독자적으로 교단을 세우고 後天運度는 물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를 「海月仙」이라 부르도록 했다. 부산 이외에도 계룡산에 본부를 두었다. 그러나 제주도에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三法修道教化院은 통합 교단인 龍華寺가 깨진 다음 배무생(裴戊生)이 김해에서 포교를 시작했다. 배무생은 원래 보천교 신자였는데,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봉남으로부터 물법 치료를 받고 치료된 다음 충실한 제자가 되었고, 봉남으로부터 월봉(月峯)이라는 호를 받았다. 그가 1961년 사망하고, 이어서 1964년 7월에 제자들이 힘을 합쳐 삼법수도교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공보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교단을 세웠다. 그 뒤 주로 제주 지역과 경남 지방에서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법 수도 교화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는 물법신앙이다. 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서양 모든 종교에서 나타난다. 기독교에서 세례를 줄 때 물을 상징으로 삼는다든가 가톨릭 미사에서 성수를 뿌리는 행위에서 물은 거룩함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불교나 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신이 바라는 바를 비는 행위는 우리나라 민간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무교의 신화나 전설, 굿 등에 물과 관련된 신앙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⁶⁾ 그러나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는 물을 신앙과제의 한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이용할 뿐이지만 찬물교에서는 물을 신앙의 핵심

으로 삼고 있다.

미신타파, 미풍양속 저해 등의 이유로 무교가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른 신흥종교들이 흑세무민하는 종교로 지탄을 받을 때 이 종교는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삼법수도교화원을 문화공보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다.⁷⁾ 교화사들은 삼법수도교화원이 찬물교 계통의 교단들 가운데 정식으로 국가 기구에 등록된 유일한 단체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교화사들과 신도들의 무교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무교에 비해 훨씬 합리화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자기들은 타력(他力)신앙보다 자력(自力)신앙을 더 중요시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관운장 등 여러 종류의 신을 모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수련을 통한 몰법 신앙의 터득을 매우 중요시하며 유불선 삼법의 핵심을 모두 받아들여 실천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찬물 신앙은 제주도의 무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찬물신앙이 무교 신앙과 도교 신앙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이다. 무교 형태 그대로 남아 있으면 포교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제도 종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성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교가 갖는 치병 곳의 요소가 찬물교의 중요한 실행으로 남아 있으며 교단에 모여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치병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단지 무교 신앙만이 아니라 도교의 수련을 통한 도통을 중요한 과정으로 제도화하여 정착시킨 것을 보면 주술은 단지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남는 것 같다.

이 종교는 한국의 종교적 전통 속에서 보면 힘에 대한 신앙으로 유형 분류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볼 때 뿌리는 무교에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무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술적인 신앙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위에 우리 민족 정서에 뿌리내리고 있는 유불선(儒佛仙)을 적절히 조합하고 그 중에서 특히 도교적인 수련 방법을 중요시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랜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며, 오랜 역사 속의 전통적 요소를 끄집어 내 오늘의 종교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중의 고통인 병을 치료하면서 물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이 두 개념을 연결시키고 재조직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종교적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종교집단을 움직이는 힘일 것이다. 실제로 찬물이 얼마나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을 중심으로 삶의 해답을 얻고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무교는 주술적 속성이 강하지만, 찬물교 계통의 교단, 특히 삼법수도교화원에서는 주술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벗어나 종교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주술이 종교로 바뀌어 가는, 주술적 요소가 지배적이었던 형태로부터 종교적 요소가 지배적인 형태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교라고 생각된다.

4. 제주도 무속 신앙의 변화와 신종교

제주도는 민간신앙, 그 중에서도 무속 신앙의 내용이나 주민들이 심방(무당의 제주에서의 호칭)과 밀착된 정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최근까지 지역민의 종교로서 그 생활세계를 지배해 왔고 현재에도 그 영향력의 범위가 아주 넓게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두드러지게 다르다.

우선 민간신앙행위가 지역 신앙민들에 의해 행해지는 당(堂)의 존재이다. 총인구 54만 2천 명(2000년 현재)의 지역에 현재 348개의 당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마을신의 신화인 본풀이가 심방에 의해 무가(巫歌)로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또한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는 찾기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연구자들이 채록한 제주도 서사무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 수록된 무가의 수만 해도 500여 편인데, 이렇듯 방대한 양의 무가가 근래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앙 내지 민간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⁸⁾

제주도 민간신앙이 특이성틀 드러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이 각종 민간신앙이 성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힘을 시시때때로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불안심리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민간신앙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주된 전승집단이 해녀라는 사실은 바로 이 점을 반증한다. 다른 한편 제주도는 한반도문화의 하위체계라고 규정할 수 없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 문화의 이러한 역사성은 한반도에 편입된 이후에도 생활문화 속에 침전되어 작용함으로써 제주도 민간신앙을 유지하는 기체가 되었다고 판단된다.⁹⁾

한국 사회에서 무속신앙은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왔으며, 무당의 활동뿐만 아니라 무당에게 굿을 의뢰하고, 귀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빌고 의지하는 주민들의 행동 역시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침략기와 해방 이후까지 계속 '미신(迷信)'으로 규정되었으며,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전근대적 폐습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또 그랬기 때문에 무당은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이후 무속신앙에 대한 탄압은 미신타파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1970년대 새마을 운동 기간에 절정을 이루었다. 제주도에서도 청년들을 앞장 세워 각 마을의 신당(神堂)을 파괴하고, 경찰이 무당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곳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고 모든 지방 행정기구들은 미신타파와 관련된 실적을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대적 탄압 조치 때문에 실제로 무당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다(조성운, 1998).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탄압이 줄어들면서 무속신앙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줄어들기만 하던 무당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전통 무당인 심방이 아닌 육지 무당들이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0여 년 전만 해도 몇 명 되지 않던 육지 무당이 지난 10여 년간 대폭 늘어나 이제는 1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국 각지로부터 들어오는데, 심방과는 달리, 흔히 여자는 '보살', 남자는 '법사'라고 부르며, 또 자신들도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무당인 심방이 세습무라면 그들은 강신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농촌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주로 도시 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점집을 열고 손님을 받는다. 물론 점을 쳐주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점을 쳐주면서 손님들과 관계를 맺고 손님들이 의뢰하는 곳을 한다.

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농촌을 무대로 활동하던 심방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물론 중요한 곳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존회를 구성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그칠 뿐이다. 반면 강신무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기술 문명에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 통신 수단을 매체로 적극 활용하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무속신앙의 재활성화는 신앙민들이 신종교로 빠져

들던 경향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신종교의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가장 먼저 제주도에 들어와 퍼져 나간 신종교는 증산교였다. 1910년대부터 퍼져나간 증산의 가르침은 먼저 태을교, 보천교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후반에는 무극대도교로 변화하면서 많은 신자를 끌어들이었다. 이것은 증산의 가르침을 중심 뼈대로 하면서도 제주도의 민간신앙의 다양한 양태를 결합시킨 형태의 혼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해방 이후 대부분 약화 쇠퇴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종파는 명도암의 무극대도교와 광령리의 단군성주교 정도이며 신자의 수도 적은 편이다. 반면 1970년대 이후 서울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급속히 성장한 대순진리회가 1980년대부터 포교를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신자를 늘려갔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한 제주수련도장은 서울본부의 수련도장 경기도 여주의 수련도장과 함께 전국 교인이 함께 이용하는 대규모 건물이다. 그러나 제주수련도장을 순조롭게 지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서귀포시 하원동과 천지동에도 각각 대규모 수련도장을 지으려던 계획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이 일제침략기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던 무극대도교와 교리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무극대도교를 그냥 선도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후천개벽의 교리를 내세워 혹세무민하면서 신자들의 전재산을 빼앗는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하면서 대립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중앙 교단의 분열의 여파 때문에 제주도내의 신자들도 분열된 상태이며 신자수도 급속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산도는 대학생들을 중심으

로 대학가에서 주로 신자를 확보하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는 많지 않다.

2)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종교는 찬물교 계통의 종파들이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은 윤유선의 타불교로서 치병의 소문을 듣고 모인 수천 명의 신자를 거느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는 타불교는 약화되다가 삼법수도교화원으로 흡수되었다.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종파는 천지대안도인데, 본부가 계룡산 지역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분 때문에 활동력이 약해지면서 교회수도 줄어들고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처음부터 많지 않은 신자로 유지되던 삼법수도교화원은 수백 명의 신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3)기독교계 신종교는 제주도에서 내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에야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기독교계 신종교는 천부교(신앙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천부교는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시켜 가던 1960년대에는 제주도에서도 1,500명 이상의 교세를 확보했었지만 곧 몰락하여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통일교 역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조금씩 교세를 넓혀나갔지만, 최근에는 다시 크게 약화되고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는 애초부터 적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결코 많은 신도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

- 1) 『조선불교』제23호 1926.3. 제주불교사연구회(2002: 65)
- 2) 「관결문」(濟州道, 1996: 737)
- 3) 찬물교 계통 교단에 관한 李康五의 글은 다음과 같다. ①「新興宗教」,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北道篇)』(서울:文化公報部 文化財 管理局, 1971); ②「新興宗教」,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慶尙南道篇)』(서울:文化公報部 文化財 管理局, 1972) ③「韓國新興宗教의 概觀」, 『大溪 崔逸雲 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1975 ④「奉南教系(찬물교系) 總論-韓國 新興宗教研究 資料篇 第五部-」⑤「新興宗教」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民俗大觀』第3卷 民間信仰?宗教(서울: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2) ⑥「물法系 教團史」, 『宗教新聞』1990년 3월 7일-8월 1일. 이처럼 이강오의 글은 여러 편이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토대가 되는 글은 처음 두 글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후 최근까지 나온 글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조사한 두 글을 토대로 가필한 것으로 새로운 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②두 글이 가장 주목할 만하며, 특히 부산의 종교를 정리하는 민속조사보고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탁명환은 『한국 신흥종교의 실상』에서는 이강오의 조사 이후 대략 1970년대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4) 조성윤, 「찬물교 연구 서설」, 현대한국의 종교와 사회-한국 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35집, 문학과 지성사.
- 5) 무량교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孫致誠이 시작한 종교이다. 손치성은 교육을 받은 바 없는 농민인데, 30세에 병이 들어 고생하다가 어느 중이 念佛修行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한 말을 따라 자신의 집 뒷산인 天燈山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아미타불을 외우며 수련을 한 끝에 天燈山神의 도움을 받아 병을 고치고 道를 깨달았다고 한다. 이 종교는 나름대로 정해진 교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산신으로부터 받았다는 「無量呪」와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소리 내 외

우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수련을 주로 하는데, 문자로 쓰여진 경전을 몰라도 수양이 지극하다면 얼마든지 도통할 수 있다는 뜻으로 「無文道通」을 중요시 하였다. 집에서나 道場에서 「天燈佛師山王大神無量上帝님」의 神位를 써 붙이고 촛불을 밝힌 다음, 그 앞에 찬물 두 그릇을 바치고 「無量呪」와 「아미타불」을 외우며, 수련이 끝나면 바쳤던 찬물을 마시며 靈이 내린 자신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마찰하면 병이 낫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수련 방식은 찬물교의 기본 수련방법으로 거의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이강오는 무량교가 산신을 주 신앙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때문에 巫俗崇神系 教團으로 분류하고 있다.

- 6) 문무병, 「濟州島の 生水說話와 물법신앙」, 『耽羅文化』第12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所, 1992.
- 7) 文化公報部, 「韓國의 宗教」(1972). 413쪽.
- 8)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조성윤 외, 『제주도 민간신앙의구조와 변용』, 2003, 백산서당, 96-97쪽.
- 9) 윗 글, 97-98쪽.